광주극장은 전국의 극장 가운데 아직도 손그림 간판을 그리는 유일한 곳이다. 지난달 31일 극장 간판 작업실이 모처럼 북적거렸다. 20년 가까이 광주극장 영화 간판을 그려온 박태규씨 이외에 이날은 풋풋한 대학생들이 함께 붓을 들었다.

전남대 미술학과에 다니는 안홍제(4학년), 박명지(4학년), 신진아(3학년)씨와 졸업생 강선호(28)씨 그리고 에너지자원공학과에 다니는 신승혁(27)씨가 그 주인공이다.

지난달 31일 광주극장에서 '경계도시 2' 영화 간판을 그린 대학생들이 환하게 웃고 있다. 안홍제·신승혁·박명지·신진아·강선호·박태규〈왼쪽부터〉씨.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디지털 세대, 아날로그 감성에 빠지다

대학생들 광주극장 영화 '경계도시2' 손그림 간판 그리기 참여

"부들부들 떨면서 그렸어요"…내일 홍형숙 감독과 함께 상판식

TV 프로그램에서나 봤던 영화 간판 그리는 현장을 찾아, 직접 붓질을 하는 학생들의 표정은 상기돼 있었다.

안씨 등이 그린 영화 간판은 재독 철학자 송두율 교수의 2003년 방한 기록을 담은 '경계도시 2'. 가로 3m 80㎝, 세로 2m 10㎝ 크기의 간판에는 송교수의 고뇌하는 얼굴과 뒷모습이 담겼다.

간판을 그릴 때는 스케치를 한 후 먼저 배경을 칠한다. 그리고 가장 신경을 쓰는 얼굴은 마지막에 그려넣고 영화 제목 등 글씨를 쓴 후 작업을 마무리한다.

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선호씨는 전체적인 그림 작업에 참여하고, 미술이론 전공생들인 나머지 학생들은 글씨를 쓰거나 배경 색칠을 담당했다.

간판 그리기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든 게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이런 아날로그 감성을 느낄 수 있어 너무 즐겁다"고 입을 모았다.

"영화 제목 세 글자를 썼는데 2시간 동안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작업했어요.(웃음). 조금 힘들기는 했지만 다른 어디서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일들이라 무척 즐겁습니다."(신승혁)

"유성페인트로 작업하는 거라 무척 힘든 것 같아요. 지금 그리는 간판도 꽤 큰데 예전에는 지금 간판 보다 몇배는 큰 곳에다 그림을 그리셨다고 하더라구요. 계속 서서 그림을 그리니 체력 소모도 만만찮던데요. TV나 영화같은 데서 보고 궁금증이 컸는데 참 좋은 경험이었습니다."(강승호)

"어렸을 적 드라마 '은실이'에서 간판 그리는 모습을 봤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어렸을 때 극장에 가면 이런 간판을 본 적이 있는데, 이제는 추억속에만 남아 있게 돼 안타깝죠. 직접 참여하게 돼 즐거웠어요."(박명지)

지금은 모든 극장이 컴퓨터로 이미지를 출력해 극장 간판을 만들고 있지만 광주극장은 1년에 2~3차례는 꼭 손그림 간판을 내건다. 극장측은 다음 간판 작업 때도 관객이 참여하는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랫동안 홀로 외롭게 간판을 그렸는데 이렇게 여럿이 함께 하니까 좋네요. 잘 그리고, 못 그리고를 떠나서 간판에 관심이 있는 이들과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런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박태규씨는 특히 "이번 영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작품이기도 해 더욱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이번 작업은 학생들에게 남다른 추억으로 자리잡을 듯하다. 이번 간판 그리기에 참여한 학생들의 이름은 하나 하나 간판에 새겨진다. 또 3일에는 광주극장을 방문하는 '경계도시 2'의 홍형숙 감독과 함께하는 '경계도시2 손간판 상판식'도 열린다.

이날 광주를 찾는 홍감독은 전남대 철학과 박구용 교수 사회로 열리는 '관객과의 대화'에 참여하며 전작인 '경계도시 1'을 함께 볼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된다. 문의 062-224-585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매주 넷째 주 토요일은 박물관 가는 날

국립광주박물관 '가족 나들이'

큐레이터와 함께 문화 체험

문학관·미술관 등 탐방

지난해 여름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린 '2009년 우리 가족 박물관 나들이'에서 참가자들이 전시작품을 둘러보고 있다. 〈국립광주박물관 제공〉

"큐레이터와 함께 미술관·박물관으로 놀러가요."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이원복)은 매주 넷째 주 토요일을 '박물관·미술관 가는 날'로 정하고 오는 11월까지 '2010년 우리 가족 박물관 나들이'를 떠난다.

초등학생을 동반한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나들이는 보성태백산맥문학관, 화순다산미술관, 함평잠월미술관 등 광주·전남지역의 박물관과 미술관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이다.

광주박물관의 전문큐레이터가 동참해 방문지역의 박물관·미술관의 관람을 돕고, 순천 선암사, 강진 다산초당 등 사찰과 유적지 등도 함께 답사하게 된다. 또 큐레이터의 안내로 해당 박물관·미술관에서 부채만들기, 천연염색하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오는 10일 순천을 시작으로 보성·화순(4월 24일), 영광·함평·무안(5월22일), 목포(6월26일), 강진·해남(7월24일), 영암(8월28일), 구례·곡성(9월25일), 나주(10월23일), 광주(11월27일) 지역을 답사할 계획이다.

매회 40명을 선착순 모집하고, 한 가족이 한 차례만 참여할 수 있다. 점심과 입장료, 체험비 등은 참가자들이 부담해야 하며, 국립광주박물관 홈페이지(http://gwangju.museum.go.kr)에 접수하면 된다.

박물관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다양한 지역 문화를 즐겁게 체험하고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재미있는 행사다"고 말했다. 문의 062-570-7032.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영화배우 조재현 광주 강연회

내일 영상복합문화관

영화배우 조재현씨가 광주에서 강연회를 갖는다.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3일 오후 2시 광주시 동구 광주영상복합문화관 6층 G시네마에서 '2010년 제1회 찾아가는 문화콘텐츠 전문가 강연'을 개최한다. 지역 문화콘텐츠산업의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마련된 이날 강연회에서 조씨는 '공연영상 문화콘텐츠, 미래를 여는 창(窓)'이라는 주제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연한다. 조재현은 영화와 드라마 뿐 아니라 '연극열전'의 연출자로도 활동하고 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